문양에 나타난 에벤키족의 세계관

엄순천*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에벤키족 문양의 특징
3. 에벤키족의 토테미즘과 문양
4. 에벤키족의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문양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에벤키족 문양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하며 에벤키족의 미의식, 내면세계, 예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에벤키족 문양이 시베리아 다른 소수종족의 문양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적 변별성, 기하학 모티프의 선호, 가장자리 문양의 발달이다. 에벤키족은 동물숭배사상을 문양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에벤키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가라, 순록, 산양, 맘모스 등의 상징 문양을 선호한다.

에벤키족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은 삼단세계관 및 주술적 세계관으로 연결된다. 에벤키족이 문양을 통해 삼단 세계관을 표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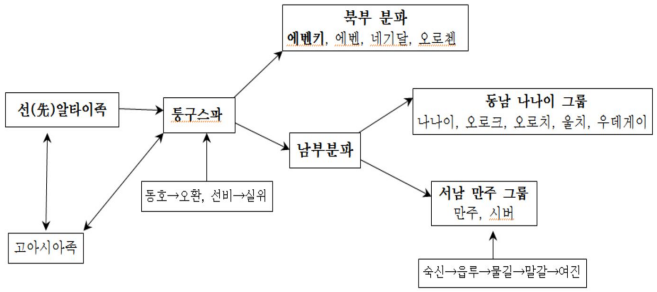
* 성공회대 교양학부

방법으로는 세계수 모티프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각(角) 모티프로 표현하는 방법과 천상세계는 모자, 중간세계는 윗도리, 지하세계는 신발에 표현하는 방법, 숫자 '3'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주제어: 에벤키족, 문양, 토테미즘, 샤머니즘, 삼단세계관, 주술적 세계관

1. 들어가는 말

문양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자연발생적인 상징물로 처음에는 단순한 선이나 점이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변화, 발전하면서 종족별로 고유하고 독창적인 모티프, 구도,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문양은 특정 종족의 역사, 문화, 세계관, 미의식, 색채 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매개체이다.



〈그림 1〉 퉁구스족 계통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에벤키족 장식예술 속 문양이다. 에벤키족은 시베리아의 소수 종족으로 언어계통상 알타이어족 퉁구스어파 북부분파에 속하며(〈그림 1〉 참고) 전통 생업은 사냥과 순록

사육이고 유목 이동 생활을 한다. 2010년 기준 러시아에 37,000명, 중국에 39,500명, 몽골에 1,000명으로 모두 77,500명이 생존해 있다.[1] 에벤키족은 시베리아 다른 토착종족과 비교할 때 비교적 연구가 활발한 편이지만 시베리아 소수종족 연구가 전반적으로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대적일 뿐이다.

고대 에벤키족은 문양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까? 고대 일정 시기 문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에벤키족의 상징물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징의미는 탈색되고 장식적, 심미적 의미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따라서 지금 에벤키족 문양의 고대 상징의미를 완벽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에벤키족의 세계관과 설화 텍스트 등을 통해 일정정도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양은 구조 상 거시적 의미를 구성하는 구도와 미시적 의미를 표현하는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도는 문양의 중심 체계를 이루고 모티프는 구도를 구성하는 개별요소가 된다. 따라서 구도는 에벤키족의 거시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모티프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미시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벤키족 문양의 특징, 에벤키족의 세계관을 분석한 뒤 에벤키족의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문양과 모티프에 반영되었는지 규명할 것이다.

2. 에벤키족 문양의 특징

에벤키족 문양이 시베리아 다른 소수종족의 문양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적 변별성, 기하학 모티프의 선호, 가장자리 문양의 발달이다.

---

1) Эвенки, https://ru.wikipedia.org/wiki/%D0%AD%D0%B2%D0%B5%D0%BD%D0%BA%D0%B8, 검색일: 2017.04.01.

1) 문양의 지역적 변별성

에벤키족은 서 시베리아에서 극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교류 종족이 달랐다. 이로 인해 에벤키족 문양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모티프, 형태, 기술적 수법 등을 가지게 되었다. 에벤키족은 17세기 이전 시베리아 동쪽 지역에서는 부랴트족, 동북쪽 및 중앙지역에서는 야쿠트족, 북쪽지역에서는 축치족, 아무르 강 연안에서는 다른 퉁구스 제 종족과 고아시아족, 서쪽 지역에서는 러시아인, 튀르크계 및 우랄계 종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7세기 이후에는 시베리아 전역에서 러시아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슈네이더(Шней дер Е. Р.)는 에벤키족 문양을 동부 문양, 서부 문양, 중앙 문양의 3그룹으로 나눈다. 동부 문양은 시베리아 동쪽 지역, 서부 문양은 예니세이 강 인근, 중앙 문양은 야쿠티야 지역 에벤키족 사이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2] 슈네이더의 분류는 문양의 외형적 특성에 근거한 형식적 분류지만 에벤키족 문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에벤키족 장식예술과 문양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왔다.[3] 또 슈네이더의 분류는 에벤키어 방언 분류와 일정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4] 슈네이더의 문양 분류에 근거하여 에벤키족 문양의

---

2) Шней дер, Е. Р., "Искусство народности Сибири", *Сб. Казаки*, Л., 1930, с. 61.

3) 1922년 로파틴(Лопатин И.)은 에벤키족 장식예술에서 문양은 발달하지 않았고 일상용품에 채색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목각 예술은 발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극히 표면적 관찰에 의한 주장임에도 이후 20세기 초중반까지 거의 정설로 굳어졌다. 참고: Лопатин, И., *Голдьı амурские, уссурийские и сунгарийские*, Владивосток, 1922, с. 113.

4) 에벤키어 방언은 크게 남부 시음-스음방언, 동부 마찰음 방언, 북부 마찰음방언으로 분류된다. 슈네이더의 문양 분류와 에벤키어 방언 분류에 근거할 때 동부 문양은 동부방언의 대부분, 서부 문양은 남부방언, 중앙 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쿠트족과 인접한 지역의 중앙문양에는 원문, 반원문, 삼각문, 지그재그문, 마름모문, 십자문, 삼지창 문, 각(角)문, 나선문, 장미꽃문이 널리 전파되어 있다. 이 중 원문, 반원문, 삼각문, 지그재그문, 십자문은 에벤키족 고유 문양이다. 마름모문, 각(角)문, 나선문, 장미꽃문은 야쿠트족, 삼지창문은 이누이트족의 고유 문양이므로 에벤키족이 이들 종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특히 야쿠트족과 교류가 잦았던 올렉마 강 에벤키족 사이에서는 마름모문, 나선문, 장미꽃문 등 야쿠트족 고유 문양이 다른 지역의 에벤키족에게서 보다 훨씬 많이 발견된다.[5]

둘째, 부랴트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부문양에는 십자문, 반십자문, 식물문, 새문이 널리 전파되어 있고 비단실을 이용한 자수가 발달했다. 이중 십자문과 반십자문은 에벤키족 고유 문양이지만 새문, 식물문은 부랴트족의 고유 문양이므로 에벤키족이 부랴트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특히 부랴트족과의 교류가 잦은 아무르 강 유역과 자바이칼리예 에벤키족이 다른 지역 에벤키족보다 부랴트족 고유문양을 적극 차용했기 때문에 이들 문양에서는 새문, 식물문 등을 변형한 곡선 문양이 많이 발견된다.[6] 동부문양에서 비단실 자수가 발달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나이족 등 퉁구스

양은 북부 방언과 동부방언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참고: 엄순천,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퉁구스족 (에벤키족) 씨족명 및 문화 연구』, 서강대 출판부, 2016, p. 83.

5) Иванов, С. В., *Орнамент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материалам XIX - начала XX в.). Народы Север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63, с. 270.

6) Кушнарёва, С. А., "Анализ модели мира в орнаменте эвенков как средство развития духов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ёж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Эвенкий ский этнос в начале третьего тысячелетия.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2, Изд-во Благ. гос. пед. универ-та, 1997, с. 170; Иванов, С. В. Ibid, с. 275.

제종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셋째, 튀르크계와 우랄계 종족 및 러시아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부문양에는 기하학 모티프가 현저히 발달했고 곡선문, 식물문, 새문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특히 예니세이 강 서부 에벤키족 사이에는 교차하는 사각문이 매우 발달했으나 에벤키족 고유의 모티프인 십자문은 한 종류만 있을 뿐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7] 또 주변 종족의 영향으로 구슬, 직물, 색실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문양의 색채와 형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고유 문양의 틀을 변형시키지는 못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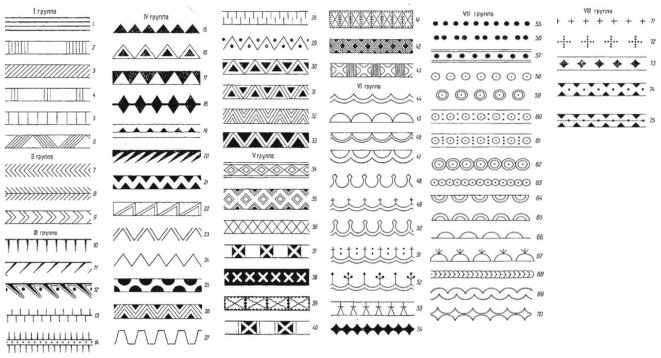
이처럼 에벤키족 문양을 동부, 서부, 중앙의 지역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주변 종족의 영향에 의한 세부 모티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7세기 이후 에벤키족 문양은 동부, 서부, 중앙문양으로 분리되었지만 기학학 모티프와 다양한 모티프가 가장자리에 질서정연하게 반복되는 가장자리 문양은 전체 에벤키족 문양의 고유한 특징으로 남았다.

2) 기하학 모티프의 선호

에벤키족은 줄문, 마름모문, 원문, 바둑판문, 삼각문, 지그재그문, 화살문, 십자문, 로제트문, 물결문, 각(角) 문 등 기하학 모티프를 선호하지만 지역별로 가장 차이가 큰 모티프이다.

---

7) Иванов, С. В., Ibid, с. 274.
8) Иванов, С. В., Ibid, с. 274.



〈그림 2〉 에벤키족 골제품에 새겨진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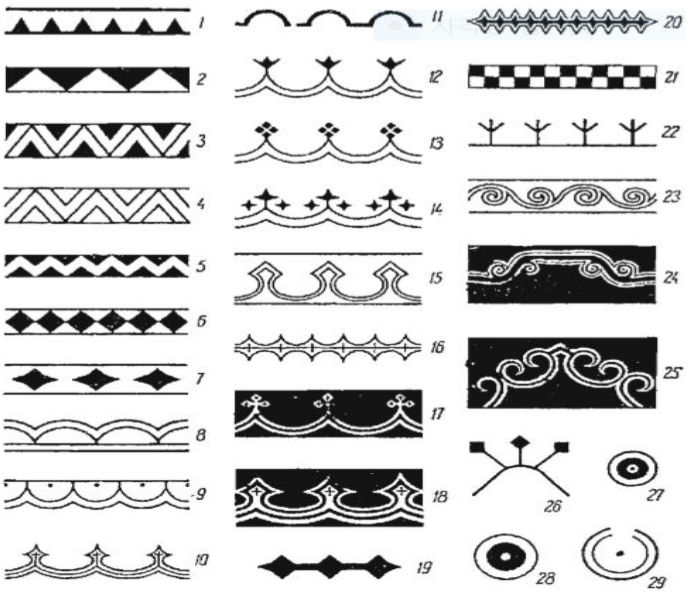
〈그림 2〉[9]는 에벤키족 골(骨)제품에서 발견된 기하학 모티프인데 Ⅰ 그룹은 직선문, 사선문, Ⅱ 그룹은 꺽쇠문, Ⅲ 그룹은 빗살문, Ⅳ 그룹은 지그재그문, 삼각문, Ⅴ 그룹은 마름모문, Ⅵ 그룹은 반원문, Ⅶ 그룹은 원문, Ⅷ 그룹은 십자문이 기본 모티프이다. 이중 Ⅲ 그룹의 10번~14번 모티프는 오늘날 에벤키족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이누이트족에게서는 발견된다. 그런데 과거 극동 기지긴스키 지역과 일림페야 강 에벤키족에게서 이 모티프가 발견되는 점[10]으로 미루어 이 모티프는 아주 고대에 발생한 에벤키족 고유 모티프인데 이누이트족이 차용한 것이다. Ⅳ 그룹의 28번, Ⅶ 그룹의 55번~59번, Ⅷ 그룹의 74번, 75번 모티프는 에벤키족 고유 모티프가 아니다. 이들 모티프가 최북동 지역의 이누이트족과 알레우트족의 골제품에서 활발하게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에벤키족이 이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다.[11]

---

9) Иванов, С. В., *Орнамент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материалам XIX - начала XX в.). Народы Север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63. сс. 262~264.

10) Иванов, С. В., Ibid, с. 263.

11) Иванов, С. В., Ibid, с. 264.



〈그림 3〉 에벤키족 목각제품에 새겨진 기하학 문양

〈그림 3〉[12]은 에벤키족 목각제품에서 발견된 기하학 모티프인데 골제품 모티프와 유사하다. 〈그림 3〉의 1번~5번은 삼각문, 지그재그문, 6번은 마름모문, 7번은 십자문, 8번~18번은 반원문에 추가적인 요소가 포함된 모티프, 19번, 20번은 양쪽으로 배열된 삼각문, 21번은 바둑판문이 기본 모티프이다. 〈그림 3〉의 22번 삼지창문은 이누이트족의 고유 문양이므로 에벤키족이 이누이트족에게서 차용한 것이다. 〈그림 3〉의 23번~25번은 1~22번 모티프와 달리 원이 강조된 곡선문으로 야쿠트 에벤키족에게서 발견되므로 곡선문이 발달한 야쿠트족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26번 삼각뿔문은 제야 강 에벤키족 사이에서, 27번~29번 동심원문은 알단 강 에벤키족에게서 발견되는데 에벤키족 고유 모티프로 추정된다. 〈그림 2, 3〉의

12) Иванов, С. В., Ibid, с. 270.

모티프는 에벤키족 문양에서 발견되지만 에벤키족 고유 모티프는 아니다. 이 중 직선문, 사선문, 꺽쇠문, 빗살문, 지그재그문, 삼각문, 반원문, 원문, 십자문, 바둑판문, 반원문에 추가적 요소가 포함된 모티프, 삼각뿔문, 동심원문은 에벤키족 고유 문양이다.

3) 가장자리 문양의 발달

고대 에벤키족이 문양을 만든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 문양은 평안을 기원하는 주문이나 재앙을 막는 호부(護符)의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다. 또 일부 문양은 문자나 특별한 기록 체계가 없던 고대 에벤키족에게는 정보전달의 수단이었고 씨족정체성, 지위와 권력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으며 주술적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 중 주술적 기능은 에벤키족의 장식예술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자리 문양이 담당했다. 웃옷의 허리선, 옷, 장갑, 신발, 가방이나 지갑, 순록 머리 장신구, 샤먼의 의상과 북 등 모든 곳에서 가장자리 문양을 찾을 수 있다. 에벤키족이 모든 일상용품과 장식예술 속에 가장자리 문양을 새겨놓은 이유는 에벤키족의 주술적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 에벤키족은 선한 정령인 세베키, 악령인 하르기, 죽은 동식물의 영혼인 헤얀의 존재를 믿는다. 하지만 가장자리 문양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악령이 인간에게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는다. 에벤키족의 가장자리 문양은 줄문, 지그재그문, 바둑판문, 마름모문, 사각문, 삼각문, 원문, 반원문, 다양한 곡선문과 같은 기하학 모티프의 결합에 기초한다.

이 중에서 에벤키족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자리 문양은 〈그림 4〉[13]처럼 유색 띠를 이어붙이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채색을 한 줄무늬 가장자

13) http://27r.ru/news/far-east/67308-mezhregionalnyj-festival-evenkijskoj-kultury-bakaldyn-projdjot-v-khabarovskom-krae; http://www.biligbitig.com/2014/07/evenkler-evenks-evenkek.html?m=1, 검색일: 2017.05.06.

리 문양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문양은 〈그림 5〉[14] 상단의 왼쪽, 유색 실을 촘촘히 박아 만든 줄문과 바둑판문 가장자리 문양이다.



〈그림 4〉 에벤키족 의복의 가장자리 문양



〈그림 5〉 에벤키족 의복의 가장자리 문양

14) 참고: http://zebrakmv.ru/fizicheskaya-aktivnost/odejda-tungusov-evenkov.php; http://sib-guide.ru/img/ar/131/3; http://rustur.ru/avtostopom-po-strane, 검색일: 2017.06.01.

〈그림 5〉 하단의 두 그림처럼 삼각문으로 이루어진 가장자리 문양도 에벤키족 사이에 널리 전파되어 있으며 〈그림 5〉의 상단 오른쪽 동심원과 지그재그 문을 특정 부위에 배치하거나 마름모문과 마름모문이 원 안에 들어간 모티프가 반복되는 복합형 가장자리 문양도 널리 전파되어 있다.



〈그림 6〉 에벤키족 가방과 지갑의 가장자리 문양

〈그림 6〉[15]은 지갑, 가방에 장식된 가장자리 문양인데 유색 실을 촘촘히 박은 줄무늬로 장식했지만 모티프가 다소 차이가 난다. 〈그림 6〉 상단 왼쪽 문양은 주황색 실을 세로로 박는 방법으로, 상단 오른쪽은 짧은 세로 줄을 쌍으로 박는 방법으로, 하단의 왼쪽은 짧은 세로 줄을 하나씩 박는 방법으로, 하단의 오른쪽은 흰색 실을 가로로 촘촘히 박는 방법으로 가장자리 문양을 만들고 있다.[16]

15) Сафьянникова, Т. М., Ibid, с. 59, 74.

16) 가장자리 문양을 구성하는 각 모티프마다 고유한 상징의미가 있고 모티프의 상징의미에 따라 전체 문양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에 대한 분석이

3. 에벤키족의 토테미즘과 문양

1) 에벤키족 토테미즘의 기원과 발전 양상

토테미즘은 계급 분화 이전 원시공동체 모계씨족 사회의 종교관으로 당시 인간은 자연에 대한 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고찰했다.[17] 이 시기 인간과 자연은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공동체라는 관념이 에벤키족 세계관의 저변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인간의 출현에 대한 에벤키족의 관념에 잘 반영되어 있다. 아주 고대부터 에벤키족은 인간이 자연물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여 모든 자연물을 에벤키족의 창조주이자 조상으로 존중했다. 이러한 에벤키족의 세계관은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벤키족 설화에 의하면 인간은 진흙, 돌, 동물 뼈와 똥 등에서 만들어졌고 자작나무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1) 땅이 막 생겼을 때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땅에서, 동생은 하늘에서 살았다. 동생은 동물 뼈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 만든 후에는 창고에 넣고 열쇠로 채워 두었다. 형은 무척 말랐는데 곤충을 만들면서 살았다(Василевич, Г. М.,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по эвенкийскому (тунгусскому) фольклору*, Институт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м. П. Смидовича, 1936, с. 249).

(2) 두 형제가 동물을 만들고 있었는데 형은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을, 동생은 사람에게 유용한 동물을 만들었다. 훗날 동생이 만든

필요하지만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가기에 다음의 연구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17) Мелетинский, Е. М., *Происхождение героического эпоса. Ранние формы и арха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М.: Изд-во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63, с. 22.

동물은 먹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 동물을 다 만든 뒤 동생은 진흙, 돌, 동물의 뼈로 사람을 만들었다. 동생은 말을 할 줄 아는 개, 까마귀, 늑대, 곰 같은 동물들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조수의 역할은 동생이 만든 사람들을 부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못된 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에벤키족은 사람의 심장은 철로, 온기는 불로, 피는 물로, 살과 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Василевич, Г. М., Ibid, с. 249).

(3) 할머니가 강가를 걷다가 거위를 발견했다. 할머니가 거위에게 겁을 주자 거위들은 놀라서 똥을 쌌다. 할머니는 거위 똥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요람에 똥을 올려놓고 흔들었더니 점점 아이의 모습을 띠어갔다. 계속 흔들었더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더 흔들었더니 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Василевич, Г. М., Ibid, с. 149).

사람의 출현을 예문(1)은 동물의 뼈, 예문(2)는 진흙, 돌, 동물의 뼈, 예문(3)에서는 거위의 똥과 연결시킨다. 이처럼 에벤키족은 자연물이 인간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했고 자연물에서 인간이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예문(3)처럼 인간의 출현을 거위와 관련시키는 관념은 심 강 유역에 거주하다 이후 예니세이 강으로 이주한 에벤키족에 특징적이다.

(4) 자작나무가 소녀를 낳았다. 소녀는 자작나무 수액을 먹으면서 자랐다. 소녀를 발견한 곰이 소녀에게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녀는 자작나무에서 태어났으며 자작나무 수액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대답했다(*Сказы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Новосиб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5, с. 30).

예문(4)는 예문(1)~(3)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관념으로 사람이 인형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예문(4)에서 사람은 자작나무에서 태어났는데 이처럼 사람이 나무에

서 태어난다는 관념은 고대부터 에벤키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원시공동체사회의 해체로 토테미즘이 의미를 상실하면서 샤머니즘에 유입되었다. 이후 에벤키족 사이에는 샤먼의 영혼은 나무속에 있으며 샤먼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나무속으로 들어간다는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에벤키족은 고대부터 나무와 사람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나무 구멍이나 나무줄기에 매장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5)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늙었다. 얼마나 늙었는지 콧구멍에서 이끼가 자라고 귀에서 도토리가 자라고 있었다(Василевич Г. М., Ibid, с. 185).

예문(1)~(4)와 달리 예문(5)에서는 사람의 육체가 자연물인 땅이 되어 식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예문(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벤키족은 인간과 자연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어로에 종사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에벤키족의 출현을 물고기와 관련시킨다. 포드카멘나야 퉁구스카 강과 니즈나야 퉁구스카 강 에벤키족 사이에는 모캐[18]의 도움으로 소년을 길렀다는 설화가 있으며 에벤키인의 얼굴이 붕어의 낯짝을 닮았다는 속담도 있다 모캐 토테미즘은 부랴트족과 케트족 설화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관념은 신석기 시대 초 앙가라 강 유역에서 어로에 종사했던 시베리아 토착종족으로부터 다른 종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19]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곰, 개와 같은 동물과의 결혼으로 에벤키족이 출현했다는 관념이 생겨났다.[20] 에벤키어에 할아버지, 노

18) 대구의 일종이다.

19) Анисимов А. Ф. *Родовое общество эвенков (тунгусов).* Л.:Изд. Институт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ЦИК СССР им. П. Г. Смидовича. 1936.

20) 에벤키족이 사람과 개의 결혼으로 에벤키족이 탄생했다는 설화는 아무르

인을 의미하는 amaka, amikan, ɛhɛ, ɛhɛk, 할머니, 노파를 의미하는 ɛvɛkɛ, ɛbɛkɛ, ɛbɛchi, 존경을 받는 노파를 의미하는 atyrkannga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곰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된다.[21] 이는 에벤키족이 아주 고대부터 곰을 자신의 조상으로 숭배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에벤키족 사이에는 곰과 인간의 혈연관계를 모티프로 한 토르가네이(Torganɛi)라는 설화가 전해진다.[22]

(6) 곰과 여인의 결혼으로 토르가네이가 탄생했다. 아버지 곰은 여인과 따로 떨어져 자신의 종족들과 함께 거주했다. 아버지 곰은 아들 토르가네이를 자신의 종족 마을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토르가네이는 지혜를 내어 아버지 곰으로부터 도망쳤다(Василевич, Г. М.,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льклор эвенков. Сказания и предания*, М., 1966, сс. 260~262).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에벤키족은 자연을 정복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한다. 고대 에벤키족은 자연이 인간을 낳을 정도로 자연이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었고 이로부터 에벤키족의 토템적 세계관이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생 설화, 결혼 설화는 차치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도 에벤키족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낀다. 동식물을 필요한 양 이상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사냥 시기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새끼를 가진 암 순록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강 우측 지류의 에벤키족 사이에서 전해지는데 이는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 아무르 강 토착민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참고: Shirokogoroff S. M., *Psycho-mental complex of the northern tungus*. London. 1935, pp. 179-180.

21) Варламов, А. Н., "Образ медведя-предка в фольклоре и мировоззрении эвенков", *Филология*, с. 178.

22) 곰과 인간의 혈연적 기원의 모티프는 에벤키족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제 종족 설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2) 에벤키족의 토테미즘이 반영된 문양

고대 에벤키족은 어떤 동물을 숭배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에벤키족 샤머니즘 특히 샤먼의 보조령에 대한 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 에벤키족 샤먼의 보조령에는 야생 순록, 큰사슴, 멧돼지, 맘모스, 곰, 늑대, 오소리, 수달, 담비 등의 동물과 가가라[23], 거위, 오리, 갈매기 등의 물새, 까마귀, 독수리, 부엉이, 백조, 학, 뻐꾸기 등의 들새, 모캐, 슈카[24], 농어, 연어 등의 어류, 도마뱀과 신화적 뱀인 댜브댜르, 뱀 칼리르 등의 파충류, 머리에는 사슴뿔이 자라고 꼬리는 물고기의 형상을 한 야생 순록 암컷 등이 있다.[25] 에벤키족은 이 동물들은 숭배하지만 모두 문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에벤키족은 자신들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가라, 순록, 산양 등을 특히 숭배했고 문양으로 표현했다.

(1) 새 상징 모티프

에벤키족은 아주 고대부터 새를 숭배했지만 이는 에벤키족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베리아 토착종족의 특징이다.[26] 이들은 왜 새를

23) 북극해에 서식하는 물새다.

24) 담수어의 일종인데 꼬치고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25) Анисимов, А. Ф., *Религия эвенков в историко-генетическом изучении и проблемы происхожения перевобытных верования*, М.-Л: Изд. АН СССР. 1958, с. 128.

26) 새 숭배, 새 문양은 시베리아 소수민족만의 특징은 아니며 서구에서도 발견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불멸의 불새가 태양의 화신이 되었고 리그베다에서 백조는 태양의 형상이며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에서는 새가 천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갈슈타트 문화 유물 가운데 새가 기원전 1,000년 기 초 태양을 상징했음이 분명한 원판 혹은 바퀴와 함께 묘사된 것이 많이 있다. 참고: Muller, F. M., *Contributions to the science of mythology*, L.-N-Y. 1897, p. 515; Лившиц, И. Г., "Детерминатив к древнеегипетским словам", *ЯС* 6, 1930, с. 223; 아리엘 골든 지

숭배했을까? 고로드초프(Городцов В. А.)에 의하면 고대 새 모티프는 봄의 태양과 그와 관련된 행복, 행운, 기쁨에 대한 관념을 상징했다.[27] 하지만 이 주장은 에벤키족의 새 숭배 사상을 온전히 해명해주지는 못한다. 새의 주요 활동무대는 하늘이다. 에벤키족은 하늘에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념은 새는 인간보다 신과 더 가까운 곳에서 신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늘신의 대변인 혹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믿음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에벤키족 새 숭배의 기원은 고대 에벤키족의 육지의 탄생에 대한 관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에벤키족 사이에는 육지를 물오리, 까마귀, 가가라가 만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7) 태초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는 물만 있었다. 사악한 형은 위에서 살았고 착한 동생은 밑에 살았는데 그들 사이에는 물이 있었다. 어느 날 물오리가 잠수를 하여 부리에 흙을 가지고 와서 물 위에 던졌다. 그 자리에 땅이 생기더니 점점 커졌다. 드디어 형제들은 땅 위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Василевич, Г. М., Ibid, М., 1966, с. 266).

(8) 태초에 물만 있었고 하르기와 세베키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착한 세베키는 위에서, 못된 하르기는 아래에서 살았다. 세벤키에게는 물오리와 까마귀가 있었다. 까마귀가 잠수를 해서 땅을 가지고 왔는데 점점 커지더니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Мазин, А.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верования и обрядыэвенков-орочонов (конец XIX-начало XX в.)*,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4, с. 20).

음, 정석배 역,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Myth and Symbol)』, 서울: 푸른역사, 2004, p. 317.

27) Городцов, В. А., "Дако-сарматские религиозные элементы в русском народном творчестве", Труды ГИМ 1, М., 1926, с. 9.



〈그림 7〉 에벤키족 문장



〈그림 8〉 가가라 상징 십자문 모음

에벤키족 사이에는 가가라와 관련하여 예문(7), (8)과 유사한 설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에벤키족에게 가가라가 특별한 이유는 가가라가 샤먼이 죽은 에벤키족의 혼령을 데리고 지하세계로 갈 때 보트의 역할을 해주는 샤먼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즉 가가라는 삶-죽음-삶으로 이어지는 에벤키족의 순환적 삶을 보장해 주는, 에벤키족에게는 무척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현대 에벤키족이 가가라를 숭배하는 이유는 일부일처제로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고대와 현대 상징 의미는 다소 변했지만 에벤키족 문양에는 새문 중 가가라 문양이 특히 발달했다. 〈그림 7〉[28]은 에벤키족의 문장[29]으로 가운데 가가라가 자리하고 있다. 에벤키족은

28) http://ruskline.ru/analitika/2006/08/15/o_rekah_v_chume_i_v_hrame/%26?commsort=votes 검색일: 2017.06.07.

29) 원래 크라노야르스키 주 에벤키족 자치구의 문장이었는데 현재는 에벤키족 전체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었다.

동식물을 문양으로 표현할 때 〈그림 7〉과 같은 사실적 표현은 되도록 피하기 때문에 가가라는 대체로 〈그림 8〉[30]처럼 십자문으로 표현된다. 〈그림 8〉 상단의 왼쪽 두 문양은 샤먼의 에어프런, 세 번째는 샤먼의 의상, 하단의 왼쪽은 샤먼의 북, 가운데는 순록의 머리 장식, 오른쪽은 장갑에 표현된 가가라 상징 십자문이다.



〈그림 9〉 에벤키족 지갑과 모자의 새 발자국 모티프

에벤키족은 새들 중 가가라 상징 모티프를 특히 선호하지만 〈그림 9〉[31]처럼 새발자국을 상징하는 모티프를 사용하여 새 숭배 사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2) 순록 상징 모티프

에벤키족 세계관의 중심에는 순록이 있다. 순록은 에벤키족 삶

30) http://www.ruthenia.ru/folklore/visual/Antropology/GRAPH/Antropol/Pictures/Jpg/Ill39.jpg:5; https://copirayter.ru/moj-reportazh-s-mesta-sobytij-primer-kak-delat/, 검색일: 2017.05.20.

31) Сафьянникова, Т. М., Ibid, с.с.32, 59.

의 동반자이다. 순록은 에벤키족에게 먹을거리, 입을 거리, 집, 일상용품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역할도 한다. '순록이 살아있는 동안은 에벤키족도 살아있다'라는 속담은 에벤키족과 순록의 관계를 잘 말해준다. 이에 더하여 에벤키족은 순록은 에벤키족을 불행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에벤키족 여인들은 악령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말린 순록 힘줄로 만든 끈을 손목에 묶고 다녔다. 또 순록 목 아래 흰색 털에 순록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털로 만든 실에는 주술적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실을 사용하여 옷이나 일상용품을 만들었다.

에벤키족은 순록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몸체나 머리를 형상화 하거나 기하학적 수법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순록 모티프는 순록의 양쪽 뿔을 상징하는 쌍으로 된 나선형 식물문이다. 순록의 뿔이 가을에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난다. 이로 인해 에벤키족 사이에는 순록과 식물의 삶이 '순환성'이라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순록을 식물문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림 10〉[32] 상단의 왼쪽은 관광객을 위한 현대 에벤키족 가옥인데 천정에 순록이 그려져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식의 사실적 표현은 금기된다. 〈그림 10〉 상단 가운데, 윗도리 중앙에는 순록의 머리가 형상화되어 있고 아래에는 나선문을 이용해 순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상단 오른쪽에서는 간단한 양나선문으로 순록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하단에서는 양나선문에 기초한 보다 복잡한 모티프로 순록이 표현되고 있다.

---

32) http://www.ampravda.ru/2013/07/20/039094.html; http://геоамур.рф/images/galleries/evenki/05/50.jpg, 검색일: 2017.04.05; Сафьянникова Т. М., 2007, с. 59, 74.



〈그림 10〉 에벤키족 장식예술 속 순록 모티프



〈그림 11〉 산양과 맘모스 모티프

(3) 산양과 맘모스 상징 모티프

산양은 에벤키족에게 먹을거리, 입을 거리를 제공해준다. 〈그림 11〉의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양은 산양을 상징하는 모티프이고 세 번째 문양은 신발의 가장자리에 새겨진 산양 모티프인데 모두 산양의 뿔을 상징하는 식물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11〉[33]의 네 번째 문양은 맘모스 상징 모티프인데 맘모스의 송곳니를 상징하는 식물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맘모스는 이미 4천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기가 거대했다는 이

33) Сафьянникова, Т. М., Ibid, сс. 58, 59; http://геоамур.рф/images/galleries/evenki/05/50.jpg, 검색일: 2017.04.05.

유만으로도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며 아주 고대의 종교관과 관련이 있다. 〈그림 11〉처럼 에벤키족이 산양과 맘모스를 식물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순록의 경우처럼 산양의 뿔, 맘모스의 송곳니,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순환적 삶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4. 에벤키족의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문양

1) 에벤키족 샤머니즘의 기원과 발전 양상

에벤키족에게 샤머니즘이 싹 튼 시기는 사회구조의 변화 즉 생산양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원시공동체 생산양식이 붕괴되면서 모계 씨족사회가 해체되고 부계 부족사회로 이전하게 되었다. 사유재산이 발생했고 부계 부족이 탄생했으며 공동체적 삶의 질서는 사유화된 삶의 질서로, 공동 노동은 개인의 노동으로, 공동 분배는 계층화된 분배로,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었고 종족, 부족연합, 민족이 탄생, 발전하기 시작했다.[34] 하지만 이를 세계 모든 종족이나 민족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에벤키족을 비롯한 퉁구스 제 종족은 일정시점 부계사회로 전환했지만 부족 혹은 부족 연합의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이 발생했지만 제한적이었으며 계층화된 위계질서가 탄생했지만 사유재산의 축적 정도가 아니라 연령이나 사냥 기술의 보유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부계 부족사회로 전환했을지라도 공통점은 부계 부족사회는 모계 씨족사회의 종교적 기반인 토테미즘만으로는 지탱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점이다. 자연물보다 더 권위 있고 강력

34) Тишков, В. А., *Народы и Религия Мира*,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9, с. 649.

한 신이 필요했다. 에벤키족 사회가 부계 부족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계 씨족사회의 종교적 기반이었던 토테미즘은 부족과 민족의 수호신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었고 우주에 대한 관념은 한층 복잡해졌다. 결국 토테미즘은 그 의미를 상실했고 동물의 형상은 샤머니즘의 지하세계로 옮겨가서 조상의 영혼, 샤먼의 보조령으로 변했다. 모계 씨족사회의 토테미즘이 샤머니즘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샤먼이라는 특별한 종교인, 특별한 계급이 등장했다. 사유재산이 큰 의미가 없는 에벤키족을 비롯한 시베리아 소수종족 사이에는 샤먼이 중심이 된 독특한 계급사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벤키족의 관념에는 우주가 천상세계, 중간세계, 지하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삼단세계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 에벤키족의 삼단세계관이 반영된 문양

에벤키족은 우주가 신과 조상의 세계인 천상 세계, 지금 에벤키족이 살고 있는 중간세계, 샤먼의 죽은 조상과 악령의 세계인 지하세계의 삼단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세계도 다시 3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한다. 천상세계는 우구 부가 혹은 우구 둔네라고 불리는데 지상의 자연현상과 자연을 통제하는 신이 지배하고 있고 에벤키족의 조상이 살고 있다. 천상세계는 해가 뜨는 곳에 위치해 있고 북극성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천상세계의 극 지역에는 태양, 달, 별을 지배하는 신이 거주한다.

지하세계는 헤르구 부가 혹은 헤르구 둔네라고 불리며 해가 지는 곳에 위치해 있고 입구는 동굴, 폭포, 깊은 연못 같은 곳이다. 지하세계는 샤먼의 죽은 조상의 땅으로 중간세계와 동일한 생활을 한다. 지하세계에는 악령인 하르기가 살고 있는데 일반 사람은 갈 수 없으며 샤먼 중에서도 아주 강한 샤먼만 갈 수 있다.

중간세계는 둘린 부가라고 불리는데 편평한 모피 양탄자이며 위

쪽에는 태양이, 그 맞은편에는 달이, 태양과 달 사이에는 별이 있다. 중간세계는 순록이나 사슴의 형상을 한 우주의 주인이 살고 있다. 우주 주인의 보조령은 선한 정령인 세베키와 에벤키족에게 열, 생명, 음식을 주는 불 할머니 정령이다. 에벤키족의 삼단세계관은 〈그림 12〉[35]처럼 1미터 길이의 샤먼의 제단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둥근 돔 모양의 맨 윗부분은 천상세계, 판 모양의 중간부분은 중간세계와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판의 아랫부분은 지하세계를 의미한다.[36]



〈그림 12〉 에벤키족 샤먼의 제단.

에벤키족이 문양을 통해 삼단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수 모티프로 표현한다. 세계수는 지하세계에 위치한 씨족의 성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뿌리는 지하세계에, 가지는 천상세계에 닿아있으며 가운데 기둥에는 중간세계인 땅이 있다. 뿌리가 있는 곳에서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 샤먼의 모(母)짐승이, 중간세계에는 인간이, 나무 꼭대기에는 조상의 영혼

35) 참고: http://www.irkipedia.ru; http://www.rpromelf.ucoz.ru, 검색일: 2017.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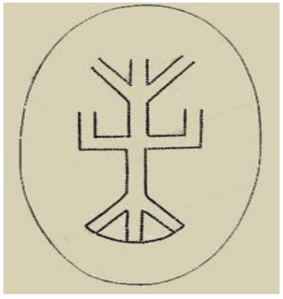
36) Анисимов, А. Ф., *Религия эвенков. Историческо-генетическом изучении и проблемы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ервобытных верований й*, 1958,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с. 143.

이 살고 있다. 에벤키족 뿐만 아니라 삼단세계관을 가진 세계 여러 민족은 세계수를 통해 삼단세계관을 표현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삼단세계관과 세계수를 연결시키는 관념은 아주 먼 고대에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우슈킨(Лаушкин К. Д.)에 의하면 세계수를 통한 삼단세계관의 표현은 이미 구석기시대에 발생하여 19세기 구전문학까지 전해졌는데 천상세계의 대표자는 새, 지하세계의 대표자는 뱀, 도마뱀, 개구리 등의 파충류였으며 동아시아에서는 거북이였다.[37]



〈그림 13〉 에벤키족 세계수 문양



〈그림 14〉 에벤키족 샤먼의 북

〈그림 13〉[38]의 에벤키족 세계수를 보면 지하세계에는 뱀이, 중간세계에는 순록을 비롯한 동식물이, 천상세계에는 새와 태양이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천상세계의 대표자는 새, 지하세계의 대표자는 뱀이라는 관념은 세계 여러 민족에게 공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

37) Лаушкин, К. Д., "Онежское святилище", *Скандинавский сборник, Таллин а-в* 4, 1962, с. 208.

38) 참고: http://artreestr.ru/modules.php?name=GalleryArt&do=showlpic&gid=1123&pid=3694&orderby=hitsA

한 현상이 인지원형에 의한 것인지 전파에 의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3〉은 현대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으로 전통적으로 에벤키족은 〈그림 13〉처럼 세계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림 14〉[39] 샤먼 북의 세계수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15〉 에벤키족의 삼단세계관이 반영된 모티프

둘째, 〈그림 15〉[40]의 상단 그림처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각(角)문을 세 개의 계단이나 층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41] 이는 천

39) 참고: http://www.tinlib.ru/yezoterika/vizualnye_obrazy_mira_v_sibirskom_shamanizme_chast_1/p3.php, 검색일: 2017.06.20.

40) http://imgload.ru/foto-evenkijskij-kostyum; http://www.firma-roniks.ru/metallicheskaya-mebel/golovnoe-ukrashenie-u-narodov-severa-rossii.php; http://vadimons-blog.ru/page/kostum_evenki_foto/, 검색일: 2017.05.01.

41) Кушнарёва, С. А., "Анализ модели мира в орнаменте эвенков как

상세계, 지하세계, 중간세계의 결합과 공존을 의미한다. 〈그림 15〉 상단 왼쪽 여성 웃옷의 아랫부분과 오른쪽 여성 모자 아랫부분의 지그재그문은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지하수를, 중간의 마름모문은 중간세계를 상징하는 땅을, 상단의 각(角)문은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순록을 의미한다.

셋째, 천상세계는 모자, 중간세계는 윗도리, 지하세계는 신발에 표현한다. 〈그림 15〉 하단의 왼쪽 그림에서 모자의 원은 천상세계를, 가슴의 십자문은 천상세계와 중간세계를 연결해주는 가가라를, 옷도리의 마름모 문은 땅을 상징하며 신발은 지하세계를 상징한다. 여기에는 천상-중간-지하세계가 계층적으로 존재한다는 에벤키족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넷째, '3'이라는 숫자 상징으로 삼단세계관을 표현한다. 특히 기하학 모티프로 이루어진 문양에서 숫자 3은 삼단 세계관 혹은 삼단 세계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숫자 3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양은 〈그림 15〉 하단의 오른쪽 그림처럼 옷의 아랫부분에 삼단 줄무늬를 붙이는 것이다. 가운데 사각문이 있는 줄문은 중간세계를, 첫 번째, 세 번째 줄문은 각각 천상세계와 지하세계를 의미한다. 이상으로 에벤키족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문양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규명해 보았다.

5. 나오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에벤키족의 세계관에 근거해 에벤키족 장식예술 속 문양을 분석하는 것이다. 에벤키족 문양은 인간과 자연의

средство развития духов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ёж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с. 175.

조화라는 삶의 원칙에서 출발하며 에벤키족의 미의식, 내면세계, 예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에벤키족 문양이 시베리아 다른 소수 종족의 문양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적 변별성, 기하학 모티프의 선호, 가장자리 문양의 발달이다.

이처럼 에벤키족 문양을 동부, 서부, 중앙의 지역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주변 종족의 영향에 의한 세부 모티프의 차이이다. 에벤키족은 줄문, 마름모문, 원문, 바둑판문, 삼각문, 지그재그문, 화살문, 십자문, 로제트문, 물결문, 각(角) 문 등 기하학 모티프를 선호하는데 각각의 기하학 모티프는 에벤키족의 세계관과 연결된다. 또 에벤키족의 장식예술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자리 문양은 주술적 기능을 담당했다

고대 에벤키족은 샤먼의 보조령인 동물들을 숭배했지만 모두 문양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정신과 물질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가라, 순록, 산양 등을 상징화하여 문양으로 표현했다.

에벤키족은 우주가 삼단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에벤키족이 문양을 통해 삼단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세계수 모티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각(角)문 모티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천상세계는 모자, 중간세계는 윗도리, 지하세계는 신발에 표현하는 방법, 숫자 '3'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에벤키족 문양 연구는 문양을 구성하는 모티프의 상징의미와 모티프의 합이 이루어낸 문양의 상징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유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에벤키족 문양과 모티프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인공미와 속성의 미가 지배하는 오늘날, 에벤키족 문양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의 여유로움과 한적함이 가지는 미적 가치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https://ru.wikipedia.org/wiki/%D0%AD%D0%B2%D0%B5%D0%BD%D0%BA%D0%B8, 검색일: 2017.04.01.
http://геоамур.рф/images/galleries/evenki/05/50.jpg, 검색일: 2017.04.20.
http://www.ampravda.ru/2013/07/20/039094.html, 검색일: 2017.04.20.
http://27r.ru/news/far-east/67308-mezhregionalnyj-festival-evenkijskoj-kultury-bakaldyn-projdjot-v-khabarovskom-krae, 검색일: 2017.05.06.
http://www.biligbitig.com/2014/07/evenkler-evenks-evenkek.html?m=1, 검색일: 2017.05.06.
http://vadimons-blog.ru/page/kostum_evenki_foto/, 검색일: 2017.05.06.
http://imgload.ru/foto-evenkijskij-kostyum, 검색일: 2017.05.06.
http://www.firma-roniks.ru/metallicheskaya-mebel/golovnoe-ukrashenie-u-narodov-severa-rossii.php, 검색일: 2017.05.06.
http://www.ruthenia.ru/folklore/visual/Antropology/GRAPH/Antropol/Pictures/Jpg/lll39.jpg; 5, 검색일: 2017.05.20.
https://copirayter.ru/moj-reportazh-s-mesta-sobytij-primer-kak-delat/, 검색일: 2017.05.20.
http://sib-guide.ru/img/ar/131/3, 검색일: 2017.06.01.
http://rustur.ru/avtostopom-po-strane, 검색일: 2017.06.01.
http://www.irkipedia.ru, 검색일: 2017.06.01.
http://www.rpromelf.ucoz.ru, 검색일: 2017.06.01.
http://zebrakmv.ru/fizicheskaya-aktivnost/odejda-tungusov-evenkov.php, 검색일: 2017.06.01.
http://ruskline.ru/analitika/2006/08/15/o_rekah_v_chume_i_v_hrame/%26?commsort=votes, 검색일: 2017.06.07.
http://artreestr.ru/modules.php?name=GalleryArt&do=showlpic&gid=1123&pid=3694&orderby=hitsA, 검색일: 2017.06.20.
http://www.tinlib.ru/yezoterika/vizualnye_obrazy_mira_v_sibirskom_shamanizme_chast_1/p3.php, 검색일: 2017.06.20.

2. 논문 자료

Варламов, А. Н., “Образ медведя-предка в фольклоре и мировоззрении эвенков”, *Филология*, сс. 178-184.

Василевич, Г. М., “Древней ший этном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названия эвенкий ских родов”,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4, 1946, сс. 33-49.

Городцов, В. А., “Дако-сарматские религиозные элементы в русском народном творчестве”, *Труды ГИМ* 1, 1926, сс. 1-32.

Кушнарёва, С. А., “Анализ модели мира в орнаменте эвенков как средство развития духов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олодёж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Эвенкий ский этнос в начале третьего тысячелетия.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2, Изд-во Благ. гос. пед. универ-та, 1997, сс. 168-174.

Лаушкин, К. Д., “Онежское святилище”, *Скандинавский сборник, Таллин. а-в.* 4, 1962, сс. 196-247.

Лившиц, И. Г., “Детерминатив к древнеегипетским словам”, *ЯС* 6, 1930, сс. 98-241.

Шней дер, Е. Р., “Искусство народности Сибири”, *Сб. Казаки*, 1930, сс. 57-100.

3. 문헌 자료

다이애나 뉴월, 크리스티나 언윈 지음, 권혜정 옮김, 『예술 속 문양의 세계』, 서울: 시그마 북스, 2012.

아리엘 골든, 정석배 역,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Myth and Symbol)』, 서울: 푸른역사, 2004.

엄순천,『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퉁구스족 (에벤키족) 씨족명 및 문화 연구』, 서울: 서강대 출판부, 2016.

Muller, F. M., *Contributions to the science of mythology*, L.-N-Y. 1897.

Shirokogoroff, S. M., *Psycho-mental complex of the northern tungus*, London. 1935.

Анисимов, А. Ф., *Религия эвенков в историко-генетическом изучении и проблемы происхожения перевобытных верования*, М.-Л: Изд. АН СССР. 1958.

Василевич, Г. М.,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по эвенкийскому (тунгусскому) фольклору*, Институт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м. П. Смидовича, 1936.

_____,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льклор эвенков. Сказания и предания*, М., 1966.

_____, *Эвенки.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XVII-XX вв.)*, Л., 1969.

Иванов, С. В., *Материалы п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родов Сибири XIX-начала XX в.*,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54.

_____, *Орнамент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материалам XIX-начала XX в.). Народы Север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63.

Лопатин, И., Г*олды амурские, уссурийские и сунгарийские*, Владивосток, 1922.

Мазин, А.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верования и обряды эвенков-орочонов (конец XIX-начало XX в.)*,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4.

Мелетинский , Е. М., *Происхождение героического эпоса. Ранние формы и арха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М.: Изд-во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63.

Сафьянникова, Т. М., *Орнаменты и украшения эвенков*, Красноярск: Изд-во Сибирские промыслы, 2007.

Сказы народов СибириНовосибирск: Новосиб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5.

Тишков, В. А., *Народы и Религия Мира*,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9.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이름: 엄순천
소속: 성공회대 교양학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06번길 13 108동 803호 (인계동 한신아파트)
전화번호: 010-6295-4446
e-mail: usc902@hanmail.net

[Abstract]

The Evenki View of the World Represented in Heraldic Designs

Eom, Soon-Cheon

The heraldic design of the Evenki starts with the principle of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obviously representing the Evenki world view, as well as aesthetic consciousness, the inner world, and the world of art. The Evenki believed that emblems in heraldic designs had a mysterious power, and symbolic expressions should be used whereas a realistic description was regarded a taboo.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 of the Evenki heraldic design is referred to as a geographical distinctiveness,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other tribes in the Siberian region. It is caused by an extensive range of distribution of the Evenki and individual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with different tribal groups depending on their regions. Nevertheless, the motif of Evenki tribes has a geometric one in common.

In this article, the symbols in heraldic design of the Evenki have been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otemism and shamanism. When it comes to totemism and heraldic designs, totemic symbols of waterfowl gagaras, reindeers, mountain goats, and mammoths have been scrutinized. Also, concerning shamanism and heraldic designs, the article has made a research on the heraldic symbols which represent both the Evenks' triple-leveled perspectives of the world and their shamanistic and magical view of the world.

Key words: Evenki, Heraldic Design, Totemism, Shamanism, Triple-leveled Perspectives of the World, Magical View of the World.